

# 건축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 -2009 한 해를 마무리하며

### Architects must be born again

#### - Finishing this year 2009

### 회원님께 드리는 글

전국의 회원님들께 한 해를 마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아 건축적 상황은 더욱 어렵기만 한데 건축사업무를 영위해 나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축사계에 닥치고 있는 각종 도전에 대응하면서 근본적으로 건축사권익보호와 생존대책 강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답답하고 미흡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가와 소비자시대입니다.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자본가의 힘을 바탕으로 대형화·조직화·기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제도가 자격과 면허를 무력화시켜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격시험에서 합격자배출이 대량화되어왔지만 그에 따른 자격자 대책은 무책임 해지고 능력자 생존이라는 방임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모품으로 전락되고 있고 권위를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비단 건축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존경받던 직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대학교육은 교양교육이거나 직업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격을 도야할 수도 없고 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건축계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축사도 실상은 응시자격자의 1/10정도만 합격하는 셈인데 그나마 쓸 일이 없고 갈 길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만 어렵고 시험만 어렵지 합격 후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할 뿐입니다.

너무 어두운 말씀만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이 시대 추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사회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각 시도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5년제 건축대학에서는 매년 3,000명 정도의 예비건축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주역이 건축임을 인식은 하였는데 아직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고 외국의 스타 건축사 설계나 참여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만 하고 있지 건축문화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바탕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주역인 건축사들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축문화라는 가치가 사회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좋아질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기점에서 건축사들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새로운 건축사상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하면서 밥 타령, 사랑타령만 해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외면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차원과 전략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사의 힘을 키워야지요.



**최영집 / Choi, Young-jeep, KIRA**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
-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대표 국가보훈처 심의위원

그 일환으로 회장을 비롯하여 현 집행부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3년간 논의해오던 건축사단체들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새로 개정될 예정인 건축사법에 따라 새 시대 건축사상을 정립하고 국토해양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등록하는 일원화 된 건축창작단체로 거듭나자고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이미 지난 2월 승인되었으나 그 후 발전적으로 일부 변경된 통합정관으로 정관개정절차를 밟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시다시피 3년간 노력해온 통합의 미래지향적인 순수성과 진정성은 희석되어버리고 불신과 오해 속에 아쉽게도

**우리는 건축사입니다. 오로지 건축과 건축사를 위해서만 생각해 나가기로 합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싸움 배우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살길만 생각해 나갑시다.  
건축사의 미래만 생각해 나갑시다. 희망의 새해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느 일과 가정에 화평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불발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하기 따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그렇게도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도 가졌고 16개 시도회장도 목표를 인식하고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지만 협회를 다른 각도로 사랑하는 일부 건축사님들의 조직적인 저지운동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부덕에 기인한 것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목표를 회원들에게 좀 더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뿐입니다.

협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 정관개정 저지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특히 특별한 열정과 특이한 방법으로 건축사 사랑에 앞장섰던 건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일부 회원들의 걱정을 경청할 수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지엽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협회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지 때를 놓치고 소탐대실을 할까 염려할 뿐입니다. 사실과 다른 많은 오해들이 정착되지 않을까 걱정할 뿐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비록 지난 2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안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회원님들과의 합의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문제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항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환갑의 나이인 회장이 무슨 개인적인 영화를 보겠다고 목표를 주장하겠습니까. 건축사업도 접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회원님들과 후배들, 후학들을 위해 바른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집행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품위향상과 생존에 관한 많은 사항들은 1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3차원적으로 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고등수학입니다.

선배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거울로 삼을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정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사단체 통합의 기대를 접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건축사법 전면개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통합 상대 단체들도 건축사계가 살길이며 건축문화시대 건축사의 도약을 위해 통합이 필수절차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협회도 지난 12월 8일~9일 임원·시도건축사회장·위원장·시도사무국장 워크숍에서 토의결과 몇 년간 계속해 왔던 통합추진의 관성을 죽이지 말고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회원님들과의 합의과정을 충실히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곧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통합추진위원 9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60%의 대의원이 찬성을 하였지만 통합문제를 절대 역지로 추진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일정도 아직은 계획이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세기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도 불씨는 살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 회원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의외로 회원합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새해에 통합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고 보다 넓은 아량으로 문제를 수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두려워 마시고 손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 한들 개인이나 협회에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통합을 실현시켜 제명회원이거나 미가입 건축사들이 입회하여 현실적으로 회원 수가 배가될 수 있다면 건축사와 협회에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협회에서 대응해나가야 할 기타 여러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로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연동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사입니다. 오로지 건축과 건축사를 위해서만 생각해 나가기로 합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싸움 배우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살길만 생각해 나갑시다. 건축사의 미래만 생각해 나갑시다. 희망의 새해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느 일과 가정에 화평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